

사회 · 문화

정답	01 ②	02 ②	03 ①	04 ④	05 ④	06 ⑤	07 ③	08 ③	09 ①	10 ①
	11 ②	12 ②	13 ②	14 ④	15 ①	16 ④	17 ③	18 ⑤	19 ③	20 ①

해설

- 01** 갑은 갈등론, 을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 병은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 문제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①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기능론이다. ③ 낙인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④ 갑과 병은 제도나 구조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다. ⑤ 사회 병리론은 기능론이다.
- 02** (가)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두 이론 모두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속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기능론이다. ㄴ. 제시된 내용은 차별적 교제론이다. ㄷ.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목표 달성을 시도하는 것은 (나)로 설명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ㄹ. (가)와 (나) 모두 기능론이다.
- 03** 두 사례에 공통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은 공유성이다. ㄱ, ㄴ. 공유성의 기능이다. ㄷ은 전체성, ㄹ은 축적성에 대한 설명이다.
- 04** ㄱ. 가구당 인원이 부부 가구는 2명, 1인 가구는 1명이다. 부부 가구가 12.8%, 1인 가구가 12.7%이므로 부부 가구 인원 수가 1인 가구 인원 수의 2배 이상이다. ㄴ. 제시된 자료에서 2세대 가구에 확대 가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대 가족의 비중은 알 수 없다. ㄷ. 2010년을 제외하고 2세대 가구 수는 친족 가구 수의 과반수이다. 2010년의 경우 친족 가구 전체가 73.3%이므로 2세대 가구가 친족 가구의 과반수이다. ㄹ. 1990년 부부 가구 비율이 10.7%, 2010년 부부 가구 비율이 17.4%이므로 총가구 수 증가율보다 부부 가구 수 증가율이 높다.
- 05** (가)는 문화 상대주의, (나)는 자문화 중심주의, (다)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①, ⑤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② 타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가)이다. ③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는 문화 이해 태도는 (가)이다. ④ 타문화와의 문화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관점은 (나)이다.
- 06** ① 문화 동화가 나타난 것은 을국이다. ② 갑국에서 발견의 사례를 찾을 수 없다. ③ 을국에서 자극 전파가 나타났는지 알 수 없다. ④ 제시된 사례에서 문화 지체는 찾을 수 없다. ⑤ 갑국의 음식 문화에서는 문화 융합이, 을국의 음식 문화에서는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 07** (가)는 간학문적 연구, (나)는 학문의 세분화·전문화의 사례이다. ③ 간학문적 연구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에 해당한다. ④, ⑤ 특정 연구 경향과 직접 관련이 없다.

- 08 가. ㉠은 갑의 내집단으로 볼 수 없다. 나. ㉠, ㉡은 갑의 준거 집단이다. 다. ㉢은 학교이므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은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르. ㉤, ㉥은 모두 이익 사회이다.
- 09 제시문에서 주장하는 연구 방법은 해석적 연구 방법이다. ① 계량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실증적 연구에 적합한 주제이다. ②, ③, ④, ⑤ 해석적 연구에 적합한 자료이다.
- 10 ① ㉠은 자본가와 노동자로, 산업 혁명의 결과로 등장하였다. ②, ③, ④, ⑤ 적절한 설명이다.
- 11 ① 자료 수집 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제시된 연구에서 실험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종속 변수인 ‘학업 성취도’를 ‘중간 고사 평균 점수’로 측정하였으므로 조작적 정의를 수행하였다. ③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주당 온라인 학습 시간이 많아질수록 중간 고사 평균 성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④ 임의로 선정한 세 곳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표본으로 했으므로 연구 결과를 모집단인 고등학생들 전체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 ⑤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한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이다.
- 12 (가)는 사회화가 생활 양식에 적응하도록 하여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므로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반면 (나)는 갈등론적 관점이다. ① 기능론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합의에 근거한다고 한다. ② 갈등 세력마저도 사회 질서에 편입시켜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했으므로 기능론이다. ③ 대립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중시한다. ④ 기능론적 관점이다. ⑤ 사회 변동은 갈등론에서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론에서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이해한다.
- 13 A 방식은 저점 개발 방식, B 방식은 균형 개발 방식이다. ① ‘의사 결정의 신속성’은 균형 개발 방식보다 저점 개발 방식에서 더 높다. ② 저점 개발 방식은 저점 지역의 성장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기를 기대한다. ③ 자본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저점 개발 방식을 선호한다. ④ 균형 개발 방식이 지역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 ⑤ A 방식이 집적 이익을 실현하기 유리하다.
- 14 ① (가) 기간 동안 1차와 2차 산업 간 생산 비중 격차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였다. ② 생산액 자체의 변동은 알 수 없다. ③ 전체 인구 수의 변화를 알 수 없으므로 도시 인구 증가율은 알 수 없다. ④ 제시된 기간 동안 1차 산업의 비중이 계속 낮아졌으므로 ‘2차 산업 비중 + 3차 산업 비중’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도시화율도 계속 증가하였다. ⑤의 시점은 도시화율이 50%를 넘어서는 (나)의 중간 시점이고, 2차 산업의 생산 비중이 감소하는 시점은 (ㄷ)의 처음 시기이다.
- 15 (가)는 사회 명목론이고, (나)는 사회 실재론이다. ① 사회 명목론에서는 사회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라고 본다. ② 사회 구조에 대하여 개인들이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입장이다. ③, ④ 사회 명목론의 입장이다.

- 16 A 회사는 탈관료제 형태를 취하고 있고, B 회사는 관료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①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위계 서열이 많이 약화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계 서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② 관료제는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을 취하고, 탈관료제는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을 취한다. ③ 업무의 일관성 유지는 관료제에서 더 유리하다. ④ 관료제는 현장 적응 능력이 떨어지므로 탈관료제에 비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⑤ 관료제와 탈관료제 모두 2차적 관계가 지배적이다.
- 17 (가)는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나)는 계층 간·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ㄱ. (가)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다. ㄴ. (나)는 정보 인프라 구축을 언급하였으므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ㄷ. (가)는 개인 정보를 이용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고, (나)는 정보 이용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ㄹ. (가)만 개인 정보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18 제시된 대화 내용으로 보아 A는 공공 부조, B는 사회 보험, C는 사회 복지 서비스이다. ㄱ. 상호 부조는 사회 보험의 성격이다. ㄴ. 사회 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ㄷ. 사회 복지 서비스는 비금점적 지원 원칙이므로 상담, 재활, 사회 복지 시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ㄹ. 사회 보험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 가입(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에 공공 부조는 정부가 기준에 따라 수혜 대상을 선정한다.
- 19 ㄱ. ㉠은 예기 사회화라고 할 수 있으나 ㉡은 지속적인 상호 작용이 없으므로 사회 집단이 아니다. ㄴ. ㉠, ㉡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성취 지위이며, ㉢은 귀속 지위이다. ㄷ. ㉣, ㉤은 수험생이라는 지위에 따른 역할 행동이고, ㄹ. ㉥은 엄마라는 지위에 따른 역할 행동이며, ㉦은 역할 갈등이 아니다. 역할 갈등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 따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 20 A 사회에서 상층은 20%, 중층은 60%, 하층은 20%이고,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한 사람의 비율은 상층에서 3%(=20%×0.15), 중층에서 15%(=60%×0.25), 하층에서 7%(=20×0.35)이다. B 사회에서 상층은 10%, 중층 30%, 하층은 60%이고,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한 사람 비율은 상층에서 1.5%(=10%×0.15), 중층에서 3%(=30%×0.10), 하층에서 12%(=60×0.20)이다. C 사회에서 상층은 20%, 중층은 10%, 하층은 70%이고,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한 사람 비율은 상층에서 4%(=20%×0.20), 중층에서 2%(=10%×0.20), 하층에서 21%(=70×0.30)이다. ㄱ. B 사회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의 비율의 최소 12%이고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의 비율은 최대 4.5%이다. ㄴ. 세대 간 계층 이동률은 A 사회가 25%, B 사회가 16.5%, C 사회가 27%이다. ㄷ. A 사회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고, C 사회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이다. ㄹ. A 사회는 중층에서 가장 많다.